

“학교폭력 기록 안겠다”

광주교육청, 학생부 기재 교과부 방침 거부

인권위 권고 수용...12월까지 기재 보류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학생부 폭력 기재 여부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도 교과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지침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오는 12월까지 보류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교과부에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과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서 “학생 인권보장에 관해 국회사정 차원의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해 초·중·고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이 같은 지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기재 대상 크게 제한해 교과부 지침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인권위 결정 이후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들 교육청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자, 각급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기록을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이번 방침을 거부하면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해당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적 장부인 만큼 시도교육감이 작성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폭염 잡는 ‘효자 태풍’ 온다

‘하이쿠이’ 북상...11일 남해안 지역 비 뿌릴듯

반가운(?) 제11호 태풍 하이쿠이(HAIKU)가 지난 뒤부터는 폭염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쿠이(중심기압 970hPa·최대풍속 36m/s)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시속 10km의 느린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하이쿠이는 8일 오후 중구 상하이 남쪽에 상륙한 뒤 이를 이상 머물면서 세력이 약화돼 열대저압부(TD)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이 소멸되면서 만든 변질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면서 오는 11일을 전후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

봤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기온을 높였던 제10호 태풍 담레이(DAMREY)와는 반대되는 효과를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폭염이 9일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약화되면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태풍이 지나면서 낮 기온도 평년(30도 안팎)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낮 최고기온이 38.5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1994년의 기록적 폭염 때는 두 개의 ‘효자 태풍’이 며칠 간격으로 찾아와 폭염이 잠시 누그러지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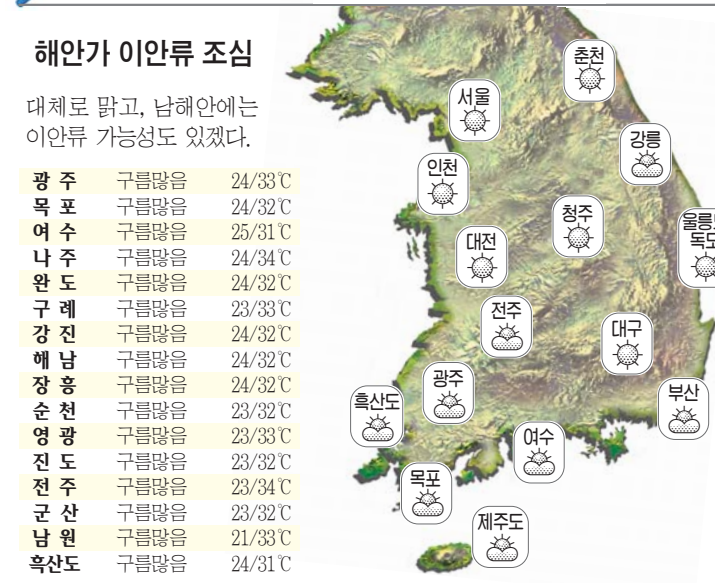
부서관 학생 하강훈련

7일 육군 제31사단 유격장에서 정성 삼계고 부서관과 학생들이 모험 탈에서 로프를 이용해 하강훈련을 하고 있다. 정성 삼계고는 전국에서 최초로 육군의 중간근무급인 부서관 양성과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7분 해질 19시 29분 달뜨기 22시 40분 달지기 11시 41분



해안가 이안류 조짐	풍향	파고	식물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대체로 맑고, 남해안에는 이안류 가능성도 있겠다.	북동~동	0.5~1.0m	경고	매우높음	높음
광주	구름많음	24/33℃			
목포	구름많음	24/32℃			
여수	구름많음	25/31℃			
나주	구름많음	24/34℃			
완도	구름많음	24/32℃			
구례	구름많음	24/32℃			
강진	구름많음	24/32℃			
해남	구름많음	24/32℃			
장흥	구름많음	24/32℃			
순천	구름많음	23/32℃			
영광	구름많음	23/33℃			
진도	구름많음	23/32℃			
전주	구름많음	23/34℃			
군산	구름많음	23/32℃			
남원	구름많음	21/33℃			
홍산도	구름많음	24/3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물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일몰	별출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목포 05:52	11:0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18:28	23:2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여수 00:07	06:20
			12:43	18:29

날짜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4/31	24/29	24/29	23/30	22/30	22/30

이틀째 전력수급 비상...‘주의’ 경보

연일 폭염이 계속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전력 수급 경보 ‘주의’가 내려졌다.

전력거래소는 7일 오후 2시15분을 가해 전력수급 경보 ‘관심’을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예비전력 300만kW 미만의 상태가 10분간 지속해 경보를 발령했으며 예비전력은 261만kW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이에 앞서 오전 11시 20분을 가해 순간 예비전력이 330만kW로 떨어지자 전력 경보 ‘관심’을 발령했다.

전력 경보 관심이 발령되면 전력 당국은 1단계 전압 조정에 들어가며 경보가 주의로 상향 되면 2단계 전압 조정을 통해 직접 부하를 제한한다.

전력거래소는 이날도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4500여개 약정업체와 오후 2시를 전후해 수요관리에 들어가 예비전력 230만kW를 비축하는 등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했다.

전력거래소는 이후 한동안 예비전력이 300만kW를 여유있게 상회하자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해 오후 3시55

분을 가해 주의 경보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인 오후 2~3시 최대전력수요는 평균 7365만kW, 예비전력은 325만kW(예비율 4.4%)를 기록했다. 순간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2시14분에 기록된 7426만kW였으며 이 시점에서 예비력은 264만kW였다.

한편 전날에는 시간당 최대전력수요가 7429만kW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 9·15 정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주의 경보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익산서 고추밭 일하던 50대 사망

7일 오후 3시10분께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의 한 고추밭에서 일하던 성모(51)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성씨의 아버지는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와보니 아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성씨

의 체온이 40.7도인 것으로 보아 열사병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문자건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